

YTN + 이성모 · YTN 보도국 영상취재2부 차장 같이 야구하실래요? FOCUS

YTN Newsone 야구동호회



[김포공항공사]

- 창단 - 1996년
- 역대 전적 - 135전 67승 12무 56패
- 2009년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기 우승
- 주요 참여 리그 - 우수 직장 리그
- 방송 리그
- 고양 리그
- 언론인 리그 참가 중
- 회원 수 - 총원 57명(여 회원 3명)
- 임원 현황 - 회장 방을열, 감독 이성모, 코치 김형욱, 총무 김성환
- 설립 배경 - 야구를 머리로 하는 스포츠라고들 한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수, 감독, 코치에게 끊임없이 생각할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설립 배경에서 말한 '생각'이란 것은 다른 종목들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순간적인 기지나 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정당한 시간(투구하기 전 마운드에서, 타석에 들어서기 전 대기타석에서, 공수전환하며, 덕 아웃 벤치에서 자신의 출장을 기다리며...) 안에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말 그대로의 심사숙고를 말하는 것이다.

1996년 겨울을 가는 길목에 팀(YTN Newsone)을 창단했다. 처음엔 유니폼도 없고, 유니폼이 없다보니 오합지졸이 따로 없었다. 물론, 야구 규칙도 몰랐고,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정도만 알고 시작한 사람들도 꽤 많았다. 일요일 운동장이 없어서 고수부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갈밭에서 캐치볼도 하고, 외야 펑고(감독이 선수들에게 수비연습을 시키는 행위)도 받으면서 그렇게 허접한 야구동호회 야구팀이 1년여만에 유니폼도 갖추고 장비를 갖추며 튼튼한 대로 시간을 내어서 연습을 하게 됐다. 부서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지만 서로 손발을 맞추다보니 어느새 하나가 되어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리그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아닌 섭외된 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느 날은 인천으로, 어느 날은 일산으로, 포천까지 원거리를 원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야구가 좋아서 모였기에 어느 누구도 탓하는 이가 없었다. 전날 화식이다, 접대다, 늦은 밤까지 술로 채우다가도 이른 아침부터의 운동에 비록 씻지는 못하더라도 꼭 참석해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함께 운동장에서 땀 흘렸다.

우수 직장 리그, 방송 리그 등 유관 방송사 팀 내에서는 제법 실력 있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건·사고 등 비상시에는 지체 없이 회사로 달려가기에 약속된 상대 팀과의 경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일반 리그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우리 팀만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상대팀에게 분의 아닌 피해를 안기게 되고, 그들의 귀한 시간을 빼앗게 되어 버리는 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 리그에 가입하지 않고, 유관 언론사와만 경기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는 6개 언론사가 친선경기 성격으로 야구장 섭외부터 진행까지 함께 하고 있다.

16여년간 팀을 유지하고 상대팀과의 친선 경기를 하다보면,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여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게 되고, 내적으로는 많은 대화와 운동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서로 다른 직종간의 간격을 야구라는 운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됐다.

야구란 종목은 오묘하며 정말 까다로운 경기이다

16년간 이어온 야구동호회에서 드디어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2009년 제1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대회에서 우리 팀은 우승했다. 4개 팀(KBS, MBC, SBS, YTN)만이 참가했지만, 우리 팀을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우승할 수 있는 팀들이다.

결승전 YTN 대 KBS. KBS 선수들은 2시간 전부터 운동장에 도착해서 배팅연습을 하고 있었고, 청소년 대표를 지낸 송학필 선배는 한참 후배들에게 배팅연습을 시키며,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다.

YTN 선수들은 KBS 선수들의 연습과정을 보면서 주눅이 안들 수가 없었다. KBS 선수들이 타격한 공은 모두 외야로 향했고, 누구하나 실수하는 선수가 없었다. 나는 감독으로써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선수들을 불러 열심히 뛰자, 실수해도 좋다, 그래도 한 번 해보자고 독려하며 선수들의 사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야구 선수라면 모두 생각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 “한 베이스라도 더 진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주문을 걸었다.

경기는 시작되고, KBS 송학필 선배는 선공을 선택했다. 1회초 KBS가 1점을 얻어 리드를 했다. 1회말 YTN 공격은 삼자범타로 물러났다. 계속된 1:0 상황에서 3회초 KBS가 2점을 더 얻어 3:0으로 KBS 선수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3회말 YTN 무사 말루 찬스에서 송학필 선배로 투수가 바뀌었다. 나는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를 불러 송학필 선배의 구질을 이야기해주었지만, 두 명의 타자가 삼진으로 물러났다. 무사 말루에서 2사 말루 여기서 점수를 못 얻으면 우리는 진다. 타자에게 번트를 지시했다. 결과는 딱 맞아 떨어졌다.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송구를 했는데 1루수 키를 넘긴 것이다. 흥분의 도가니로 빠지는 순간이었다. 나의 심장소리가 커지는 순간 1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다가 그만 아웃되고 말았다. 애! 이건 아닌데... 그래도 YTN은 3회말에 2점을 얻었고 3:2로 근소하게 따라 붙었다.



[장이영 기자 타격연습]



[황혜경 기자 타격연습]



[김현미 기자 타격연습]

그 후 YTN은 매회 점수를 얻었고, 마지막 7회초에 KBS는 중요한 찬스를 만들었다. 2사 말루 YTN 투수(박정호)는 7회까지 완투를 한 상태라 힘이 빠진 듯 했다. 다른 선수로 바꾸겠다고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나 박정호 선수는 괜찮다 할 수 있다며 바꾸지 말아달라고 했다. KBS의 마지막 선수는 송학필 선수였다.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 3볼에서 타격한 공은 유격수(이강진)에게 갔다. 잘 잡아서 1루로 송구 YTN의 우승이다. 그 순간 야구를 중학교부터 했던 나도 우승이 이렇게 좋았던 때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YTN 선수들이 뭉뚱 뭉쳐서 단결했기 때문에 KBS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YTN 야구동호회가 우승을 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1승을 목말라하던 YTN 야구동호회가 우승을 하다니 정말로 하늘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다.



야구 규칙 하나 : 닛아웃(Strike out not out 약어)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아웃이 아니더라는 역설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용어다. 닛아웃은 2스트라이크 이후에 추가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으나 포수가 이 공을 놓칠 경우를 가리키며, 이때 타자는 아직 아웃당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1루로 뛸 수 있다. 닛아웃이 허용되는 때 무사(無死) 또는 1사(一死)면, 주자가 1루에 없을 때만 닛아웃이 성립된다. 그러나, 2사(二死)라면, 주자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닛아웃이 가능하다. 만일, 2아웃이 아닌데 1루에 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닛아웃이 아니라 보통 삼진으로 처리한다.

닛아웃이란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포수가 일반 필드 플레이어처럼 미리 필드 수비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어차피 2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전에 포수가 미리 내야수 위치에 나가 있을 수 있다. 포수는 투수가 투구를 하기 전에 포수위치를 벗어나서 어디든지 위치할 수 있고, 이것은 결코 규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스트라이크 판정은 포수가 공을 잡지 않아도 스트라이크 존만 통과하면 스트라이크로 인정되기 때문에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충분히 던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2스트라이크 이후에 포수가 공을 받지 않고 내야수나 기타 수비위치에서 수비수 역할을 대신하는 작전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포수가 공을 받지 않고 미리 필드 수비위치에 있어도 룰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닛아웃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닛아웃이 무사 또는 1사에 1루 주자가 있을 경우에도 허용된다면, 이것으로 병살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야구 규칙으로 제한하였다. 주자가 1루에 있을 경우 내야 플라이잉 타구를 고의 낙구하여 병살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인필드 플라이와 비슷한 이유라 할 수 있다.



[SBS 선수들과 함께]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인데, 구기 종목 중에서는 야구를 좋아한다. 무더운 여름이라도 녹색 그라운드에서 치고 달리는 시원함을 주는 야구를 보는 건 그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다. 그런 재미가 야구의 묘미긴 해도, 한편으론 아끼지기한 야구의 규칙들과 전혀 예측치 못했던 상황들을 연출하는 게 야구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하긴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야구를 거쳐 대학까지, 아마도 부상만 없었다면 아직도 프로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무엇보다 야구에 빠지는 이유는 좀 오버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묘하게도 인생이 보이기 때문이다. 위기 다음에 찬스라든지, 야구는 9회말 투아웃 이후부터라는 유명한 격언들도 결국 우리네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그대로다. 야수들의 실책으로 루상에 내보낸 주자들을 두고 맞은 노아웃 풀베이스의 위기에 빠진 고립무원의 투수가 그 절체 절명의 위기를 무실점으로 잘 막았다면, 다음엔 반드시 절호의 기회를 맞는다는 건 인생의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그만큼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낙담하지 않고 버티는 힘이 되게 해준다는 말일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잡고, 끝까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란 것도, 그 믿기지 않는 대역전을 통해서 터질 듯 한 희열감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작기술부 김용영 차장]

야구란 경기는 반드시 안타를 많이 치고, 삼진을 많이 잡는다고 이기는 경기가 아니다. 때론 10 안타를 때리고 열 개의 삼진을 잡아도, 단 5안타에 삼진이 하나도 없이 이기기도 하는 게 야구다. 그건 꼭 기량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모아놔야 이길 수 있다는 속설을 배신하는 법칙이다. 그만큼 집중력을 갖고 응집력을 발휘해야 찬스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투수 혼자 벌이는 삼진쇼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야수들의 도움을 받아 아웃 카운트를 잡아나가는 팀플레이가 그 만큼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야구와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네 인생을 보면, 반드시 일류학교를 나오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우수한 인재들만이 인생에 있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걸 느끼게 된다. 야구나 인생이나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가 갖고 있는 조건은 필요조건 일망정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



[MBC 선수들과 함께]

인생이 무료하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느냐고 불만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야구를 취미로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야구를 보면서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에 숨어 있는 인생의 묘미를 깨달아 가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만큼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하긴 요샌 어떻게든 살아보려 애쓰던 옛날과 달리, 애들이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왜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으려하는지 답답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야구는 매 경기에서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기어이 이겨내면 누구도 믿기지 않는 대역전을 준비하는 그런 경기라는 점에서 정말 흥미만점의 스포츠다.



야구 규칙 둘 : Infield Fly(인필드 플라이)

무사(無死) 또는 1사 때 주자가 1, 2루 또는 1, 2, 3루에 있을 때 타자가 친 플라이 볼(라인 드라이브 또는 번트를 하려다가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로서 내야수가 보통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투수, 포수 및 어느 외야수라도 내야에 위치하고 앞서의 플라이 볼에 대하여 수비를 하였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 내야수로 본다. 심판원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주자를 위해서 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해야 한다.

타구가 베이스 라인 부근에 뜬 플라이 볼일 때에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를 선고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어도 볼 인 플레이이므로 주자는 플라이 볼이 잡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으나, 플라이 볼이 잡힐 경우 리터치(Retouch)하지 않으면 보통의 플라이와 같이 아웃될 우려가 있다. 공이 야수에게 잡힌 뒤에는 리터치하고 진루할 수 있다. 타구가 파울 볼이 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최초에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내야에 떨어져도 파울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로는 되지 않는다. 또 이 타구가 최초에 (아무 것에도 닿지 않고) 베이스 라인(Base Line) 밖에 떨어져도 결국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

YTN 사보에 기고했던 사회부 장아영 기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입단 후 첫 경기, YTN Newsone 2010년 시즌 개막전

비행기 소리가 웅 웅 들리는 김포공항공사 야구장에 도착했습니다. 늘 장비를 들거나 양복 입은 모습만 보이던 선배들이 여기저기서 헬멧을 쓰고 야구복을 입은 채 공 던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포 이동규 선배는 배트 두 개를 젓가락인 양 이리저리 휘두르고, 감독 이성모 선배는 빨간 포수 장비를 온 몸에 두른 불개미 같은 모습으로 넓은 구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야구라고는 동네 발야구와 주먹야구 경험이 전부인 저도 새로 받은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자가 한 명도 없는 야구팀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야구한다고 휴일근무까지 바꾸는 법석을 떠는 바람에 제가 야구광인 줄로, 최소한 야

구에 대해 좀 알겠거니 짐작하는 선배, 동기들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수준은 '우지원 때문에 농구대잔치에 가는 소녀 팬', 딱 그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삼성라이온즈에 있는 박한이 선수가 좋다면서 팬클럽에 가입하고 대구행 고속버스에 오르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스트레스 풀 방법을 몰랐던 고3의 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한이 선수 타율이 얼마인지, 타순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등번호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어쨌든 그 멋지던 야구선수들의 유니폼을 직접 입어보니 호랑이 힘이 솟아났습니다. 힘차게 구장으로 달려가 공 주고받기에 참가했습니다. 모두들 어찌나 분기탱천해 연습에 몰두했던지, 채문석 선배는 다리에 쥐가 나 실제 경기는 묵묵히 지켜보아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경기는 3회까지 3대 0으로 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내내 무실점이던 우리팀이 4회 들어 2점을 내고 마치 역전한 것처럼 좋아하자, 상대팀이 바로 8점을 뽑아내는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상대 타순은 한 바퀴 돌고, 우리팀 에이스 투수 김형욱 선배는 그 회에만 30분 넘게 공을 던졌습니다. 피엄피엄, 하지만 꾸준히 경기에 참석한다는 1번 타자 정철우 선배는 "30분 수비에 5분 공격이 우리의 모토"라고 말하며 익숙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감독 이성모 선배는 달랐습니다. 그날 한 템포 늦은 스트라이크 판정을 선보이며 활약하던 심판 김성환 선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김 선배는 점심회식에서 외톨이가 된 채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13대 4, 졌습니다. '또' 진 거라고 합니다. 패인이 성도현 선배 말처럼 "개개인의 기량은 뛰어나지만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인지, 이강진 선배 말처럼 "선수들의 위상이 낮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고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더 좋았습니다. 그날 참가인원은 새로 가입한 '노장투혼' 정영근 국장님, '입 야구' 김용영 선배, '허당' 강진원을 포함해 모두 20여명이었는데, 잔디구장을 섭외했을 때보다도 많은 인원이라고 합니다.

2010년 들어 야구화와 글러브를 샀습니다. 선배들이 배트와 장갑도 마련해줬습니다. 장비가 가난하면 장비 타령이라도 할 텐데 이제 그럴 수도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몸을 날려 꼭 1승! 같이, 야구하실래요?